

5)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

[그림 II-2-15]에 의하면 국내 대학의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05년 6,926명에서 2011년 39,02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28,919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조금씩 증가해 2018년 현재 최고 인원인 50,997명으로 나타났다.

〈표 II-2-29〉를 통해 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계열이 53.5%(27,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계열 16.2%(8,284명), 공학계열 11.7%(5,969명), 예·체능계열 11.3%(5,754명), 자연계열 5.9%(2,985명) 순이었다. 반면 의약계열 0.7%(369명)과 교육계열 0.7%(348명)은 전체 유학생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사회계열(39.4%)과 더불어 공학계열(30.8%)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사회계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2-16]에서 출신국가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인 유학생이 70.2%(35,799명)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7.2%(3,690명), 일본 2.5%(1,254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내 외국인 연수생은 2005년에는 6,544명에 불과하였지만, 2018년에는 48,576명으로 약 7.0배 증가했다(〈표 II-2-34〉 참조). 외국인 연수생은 어학연수와 기타연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학연수생은 2005년 4,857명에서 2009년 18,690명으로 약 3.8배 증가한 뒤 증감을 반복하다 2018년 현재 35,573명으로 전체 외국인 연수생 중 약 73.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타연수생은 어학연수생과는 달리 큰 변동 없이 2005년 1,687명에서 2018년 13,003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2-19] 참조). 한편 〈표 II-2-35〉을 통해 외국인 연수생을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32.4%(15,725명), 베트남 31.1%(7,533명), 몽골 5.9%(2,855명)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연수생수가 2017년 7,533명에서 2018년 15,095명으로 약 2배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출신 국가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 연수생은 중국은 감소하고 베트남이 매우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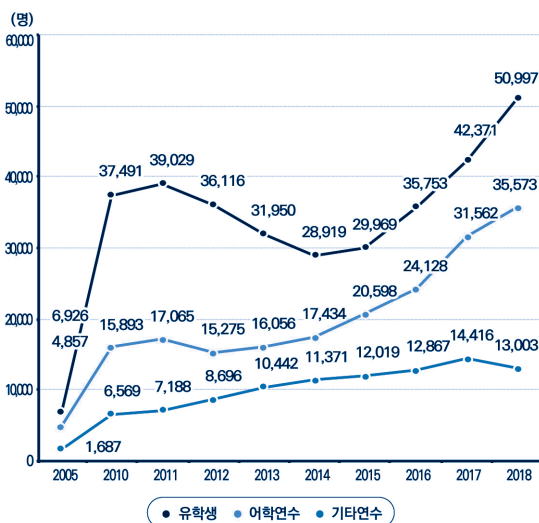


그림 II-2-15 |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수(2005~2018)

주: 〈표 II-2-28, 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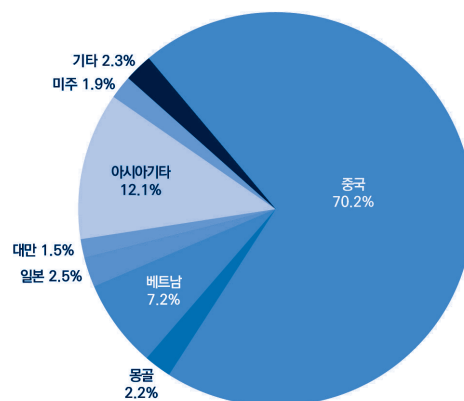


그림 II-2-16 | 출신국가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비율(2018)

주: 〈표 II-2-30〉 참조.

표 II-2-28 |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05~2018)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6,926	3,317	3,609	1,036	486	550	5,890	2,831	3,059
2006	10,670	5,279	5,391	1,420	731	689	9,250	4,548	4,702
2007	15,696	7,933	7,763	2,036	1,063	973	13,660	6,870	6,790
2008	21,114	10,503	10,611	3,022	1,569	1,453	18,092	8,934	9,158
2009	29,422	14,444	14,978	4,433	2,231	2,202	24,989	12,213	12,776
2010	37,491	18,093	19,398	6,299	3,196	3,103	31,192	14,897	16,295
2011	39,029	18,770	20,259	7,109	3,634	3,475	31,920	15,136	16,784
2012	36,116	17,132	18,984	6,963	3,512	3,451	29,153	13,620	15,533
2013	31,950	15,217	16,733	6,263	3,189	3,074	25,687	12,028	13,659
2014	28,919	13,572	15,347	5,624	2,805	2,819	23,295	10,767	12,528
2015	29,969	13,592	16,377	5,086	2,538	2,548	24,883	11,054	13,829
2016	35,753	15,561	20,192	5,545	2,714	2,831	30,208	12,847	17,361
2017	42,371	18,020	24,351	6,331	3,089	3,242	36,040	14,931	21,109
2018	50,997	21,447	29,550	7,202	3,544	3,658	43,795	17,903	25,892

주: 본 자료는 학위과정구분(학사과정)이 아닌 4년제 일반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의미함(이하 동일)

표 II-2-29 | 연도별 계열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11~2018)

(단위: 명)

	전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2011	39,029	6,207	21,543	487	4,802	2,286	335	3,369
2012	36,116	5,918	19,268	527	4,518	2,369	342	3,174
2013	31,950	4,903	17,305	285	4,009	2,147	377	2,924
2014	28,919	4,390	15,358	240	3,836	1,995	393	2,707
2015	29,969	4,658	15,711	210	4,177	2,005	320	2,888
2016	35,753	5,418	18,816	232	4,858	2,390	328	3,711
2017	42,371	6,436	22,546	261	5,469	2,682	374	4,603
2018	50,997	8,284	27,288	348	5,969	2,985	369	5,754

표 II-2-30 | 연도별 출신국가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10~2018)

(단위: 명)

	전체	아시아						미주			기타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대만	기타	미국	캐나다	기타	
2010	37,491	31,322	665	370	666	734	2,370	324	110	134	796
2011	39,029	32,684	792	395	655	714	2,419	311	133	173	753
2012	36,116	29,468	876	398	601	703	2,607	319	169	152	823
2013	31,950	24,570	896	435	695	743	2,874	371	209	175	982
2014	28,919	21,895	914	576	808	771	2,088	506	287	227	847
2015	29,969	22,073	932	761	926	808	2,657	432	272	233	875
2016	35,753	26,050	943	1,176	1,080	797	3,752	419	287	275	974
2017	42,371	30,650	981	1,977	1,167	788	4,722	423	275	319	1,069
2018	50,997	35,799	1,144	3,690	1,254	777	6,177	409	241	332	1,174

- 주: 1) 출신국가별 외국인 연수생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가 포함됨.
 2) '기타'는 아시아와 미주 지역에 속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나타냄.
 3) 아시아의 '기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대만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지역 국가를 나타냄.
 4) 미주의 '기타'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미주 지역 국가를 나타냄.

표 II-2-31 | 연도별 지역별 설립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14~2018)

(단위: 명)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2014	28,919	5,624	23,295	15,780	1,180	14,600	13,139	4,444	8,695
2015	29,969	5,086	24,883	16,643	646	15,997	13,326	4,440	8,886
2016	35,753	5,545	30,208	20,208	699	19,509	15,545	4,846	10,699
2017	42,371	6,331	36,040	24,433	773	23,660	17,938	5,558	12,380
2018	50,997	7,202	43,795	29,939	910	29,029	21,058	6,292	14,766

표 II-2-32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18)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전체	50,997	21,447	29,550	7,202	3,544	3,658	43,795	17,903	25,892
	인문	8,284	2,323	5,961	1,203	355	848	7,081	1,968	5,113
	사회	27,288	11,498	15,790	3,165	1,406	1,759	24,123	10,092	14,031
	교육	348	94	254	28	3	25	320	91	229
	공학	5,969	4,593	1,376	1,615	1,298	317	4,354	3,295	1,059
	자연	2,985	984	2,001	828	345	483	2,157	639	1,518
	의약	369	137	232	27	13	14	342	124	218
	예·체능	5,754	1,818	3,936	336	124	212	5,418	1,694	3,724
수도권	소계	29,939	10,910	19,029	910	420	490	29,029	10,490	18,539
	인문	4,792	1,187	3,605	131	22	109	4,661	1,165	3,496
	사회	16,705	6,083	10,622	368	149	219	16,337	5,934	10,403
	교육	134	34	100	5	0	5	129	34	95
	공학	3,069	2,243	826	268	199	69	2,801	2,044	757
	자연	1,783	473	1,310	76	23	53	1,707	450	1,257
	의약	143	48	95	7	4	3	136	44	92
	예·체능	3,313	842	2,471	55	23	32	3,258	819	2,439
비수도권	소계	21,058	10,537	10,521	6,292	3,124	3,168	14,766	7,413	7,353
	인문	3,492	1,136	2,356	1,072	333	739	2,420	803	1,617
	사회	10,583	5,415	5,168	2,797	1,257	1,540	7,786	4,158	3,628
	교육	214	60	154	23	3	20	191	57	134
	공학	2,900	2,350	550	1,347	1,099	248	1,553	1,251	302
	자연	1,202	511	691	752	322	430	450	189	261
	의약	226	89	137	20	9	11	206	80	126
	예·체능	2,441	976	1,465	281	101	180	2,160	875	1,285

표 II-2-33 | 연도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2007~2018)

(단위: 명)

	전체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미상
2007	1,462	890	99	473	-
2008	2,280	1,318	82	880	-
2009	3,563	2,128	134	1,301	-
2010	4,798	2,004	167	1,551	1,076
2011	6,383	3,269	294	1,589	1,231
2012	9,492	4,684	612	1,634	2,562
2013	10,238	3,957	454	1,572	4,255
2014	9,713	3,516	569	1,380	4,248
2015	7,634	2,189	449	1,089	3,907
2016	6,551	1,847	397	734	3,573
2017	7,001	1,970	404	815	3,812
2018	7,701	2,417	470	737	4,077

주: 2009년까지는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세 범주로만 구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현황을 조사하였으나, 2010년부터 '미상' 범주를 추가함.

표 II-2-34 | 연도별 성별 국내 비학위과정 외국인 연수생수(2005~2018)

(단위: 명)

	전체			어학연수			기타연수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6,544	2,881	3,663	4,857	2,244	2,613	1,687	637	1,050
2006	9,167	3,895	5,272	7,249	3,228	4,021	1,918	667	1,251
2007	15,146	6,525	8,621	12,272	5,624	6,648	2,874	901	1,973
2008	21,229	9,331	11,898	17,467	8,117	9,350	3,762	1,214	2,548
2009	23,576	9,699	13,877	18,690	8,183	10,507	4,886	1,516	3,370
2010	22,462	8,550	13,912	15,893	6,691	9,202	6,569	1,859	4,710
2011	24,253	8,948	15,305	17,065	6,909	10,156	7,188	2,039	5,149
2012	23,971	8,893	15,078	15,275	6,306	8,969	8,696	2,587	6,109
2013	26,498	9,636	16,862	16,056	6,494	9,562	10,442	3,142	7,300
2014	28,805	9,951	18,854	17,434	6,712	10,722	11,371	3,239	8,132
2015	32,617	10,992	21,625	20,598	7,708	12,890	12,019	3,284	8,735
2016	36,995	12,455	24,540	24,128	8,984	15,144	12,867	3,471	9,396
2017	45,978	16,460	29,518	31,562	12,652	18,910	14,416	3,808	10,608
2018	48,576	19,269	29,307	35,573	15,867	19,706	13,003	3,402	9,601

주: 본 자료는 4년제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학과정(산업대, 교육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포함)의 국내 외국인 연수생 수와는 차이가 있음.

표 II-2-35 | 연도별 출신국가별 국내 비학위과정 외국인 연수생수(2010~2018)

(단위: 명)

	전체	아시아						미주			기타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대만	기타	미국	캐나다	기타	
2010	22,462	12,438	978	238	2,723	487	1,841	1,298	184	202	2,073
2011	24,253	11,938	970	366	3,193	655	2,494	1,604	250	279	2,504
2012	23,971	11,986	986	486	2,773	594	2,652	1,500	194	302	2,498
2013	26,498	12,545	1,018	764	2,997	701	3,430	1,285	209	533	3,016
2014	28,805	14,747	670	835	2,434	805	3,723	1,252	201	613	3,525
2015	32,617	18,263	628	1,477	1,933	912	3,710	1,238	182	576	3,698
2016	36,995	20,048	1,210	3,025	2,037	899	3,832	1,216	190	561	3,977
2017	45,978	22,326	2,015	7,533	2,142	1,068	4,403	1,295	213	539	4,444
2018	48,576	15,725	2,855	15,095	2,164	1,077	5,363	1,332	193	497	4,275

- 주: 1) 외국인 연수생은 어학연수와 기타연수 학생의 수를 합산한 것임.
 2) 출신국가별 외국인 연수생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가 포함됨.
 3) '기타'는 아시아와 미주 지역에 속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나타냄.
 4) 아시아의 '기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대만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지역 국가를 나타냄.
 5) 미주의 '기타'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미주 지역 국가를 나타냄.

03 교원

1) 교원의 구성

대학의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임교원은 2012년 이전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었으나, 2013년부터 ‘전임강사제’가 폐지되면서 전임강사를 제외한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된다. 한편 비전임교원에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기타 등이 포함된다.

[그림 II-3-1]에서 교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56,259명에서 2005년 129,023명으로 약 2.3배 증가했던 전체 교원수는 이후 2012년 156,41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현재 148,81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p 증가했다. 전임 및 비전임교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전임교원의 경우 큰 변동 없이 1990년 33,340명에서 2018년 66,863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반면 비전임교원은 1990년 22,919명에서 2005년 79,823명으로 약 3.5배 증가했다가 2012년 94,42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18년 현재 81,953명으로 전년 대비 1,477명 증가하였다.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이다. [그림 II-3-2]을 통해 연도별로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약 0.7배로 전임교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을 앞지르기 시작해 2010년에는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약 1.7배에 이르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현재에는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약 1.2배이다.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추세를 성별로 구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교원보다 여성교원의 비전임교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여성교원의 전임교원수와 비전임교원수가 거의 비슷했으나, 2000년대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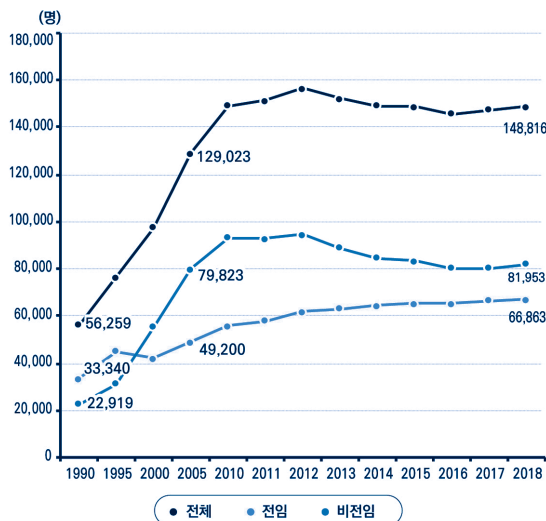


그림 II-3-1 | 연도별 전임 및 비전임 교원수(1990~2018)

주: <표 II-3-1>, <표 II-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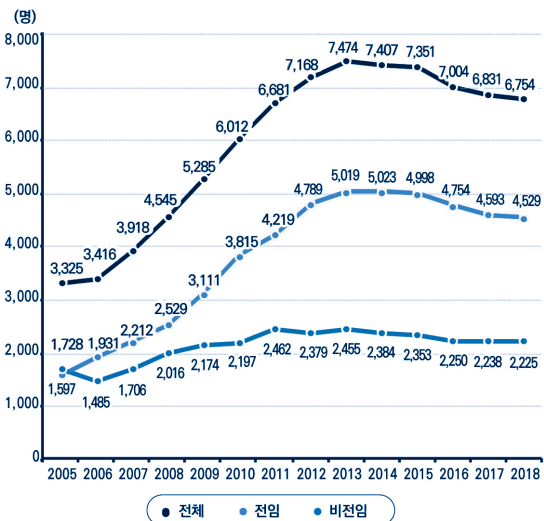


그림 II-3-2 | 연도별 외국인 교원수(2005~2018)

주: <표 II-3-9> 참조.